골목상권이 무너진다

❷ 대형마트 도 넘은 할인 경쟁

반값 품목확대로 '3차 할인공세'

올들어 생필품에서 시작된 대형마트들의 가격인하 경쟁이 최근 라면과 세제는 물론 가전제품까지 확장되면서 품목확대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광주지역의 한 대형마트 매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세업자 죽든 말든 '매출증대 효과'만 노려

사재기 조장·납품단가 인하 강요 등 부작용

대형마트 업계의 가격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간 가격인하 경쟁은 3차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체들은 1, 2차때 보다 더 많은 종류와 숫자의 상품을 내세우며 앞다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초 일부 제품에 대한 파격적 가격 인하로 시작됐던 경쟁이 소금 등 핵심 생필품을 비롯해 가전제품까지 확장되면서 '품목 확대 경쟁'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연초부터 '신 가격정책'을 선언하며 생필품 가격인하에 나섰던 신세계 이마트는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3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63%까지 내리며, 대형 마트간 가격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 이마트의 매출은 올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0.4%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경쟁업체들도 창립기념 할인행사를 내세워 공격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매주 전단지 행사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장기적인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500여개의 품목을 최대 50% 할인판매 중이다.

홈플러스도 창립 11주년 기념 대규모 할인행사를 오는 5월까지 10주 동안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핵심 생필품을 비롯해 주류, 가전, 패션, 화장품 등 거의 전 제품군에 걸쳐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는 행사다.

할인행사 덕분에 롯데마트도 지난 1~2월 누계매출이 전년대비 8.2% 늘어났으며, 홈플러스도 창립 11주년 할인 행사에 힘입어 지난달 매출이 3.2% 증가했다.

가격할인 품목이 다른 상품의 판매도 견인하는 '미끼상품' 역할을 하면서 대형마트의 전체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이마트의 경우 품절사태가 벌어졌던 삼겹살을 비롯해 고향만두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평균 두배 뛰었고 추가 인하한 상품도 매출이 전달 대비 3배 수준으로 올랐다. 품목별 할인율이 최대 6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판매량은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마트발(發) 가격전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사재기 조장, 납품업체 부담 전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싹쓸이 고객' 때문에 품절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이 생필품 사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통마진을 낮추는 경쟁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마트들이 가격인하 경쟁을 지속하다 보면 유통마진 압박을 받게 되고 이와중에 농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요구할 경우 이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포커스

곡물가·원달러 환율 하락 수혜주

음식료 업종도 관심 가져볼 만

코스피지수가 주간기준으로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원화환율은 자칫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2분기 실적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투신권을 압박하고 있는 대규모 펀드 환매는 증시 수급에도 부담이다.

그러나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00선을 회복하면서 연중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는 펀드 환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를 바탕으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플레이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양적확대 정책으로 인해 엔화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엔화대비 원화 강세의 심화는 특히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IT나 자동차 부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최근 2주 동안 원화환율의 급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된데 대한 정부의 경계심리가 표면화되고 있어 금주 추가적인 환율하락세가 진행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결국 금주 국내 증시는 1,700선 초반에서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는 등락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환율 급락세 및 주식형 펀드에서의 대량 환매가 다소 진정될 경우 시장의 추가 상승시도가 예상되므로 조정을 이용한 기존 주도주에 대한 매수 대응을 권한다. 업종별로는 최근 원자재 가격 강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소재 업종과 설비투자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계 업종이 단기 대안이 될 수 있다. 곡물가격 하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목별는 SK에너지,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대한해운, CJ제일제당 등이 시야에 들어온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光銀 2050년 세계 100대은행 진입"

어닝 서프라이즈 위해 총력

광주은행이 2010년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사상 최고실적) 달성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송기진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9일 '어닝 서프라이즈 총력 80일 작전 선포식'〈사진〉에 이어 2050년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목표로 한 '행격(行格) 레벨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송 행장은 이날 "경영성과를 높이는 한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건설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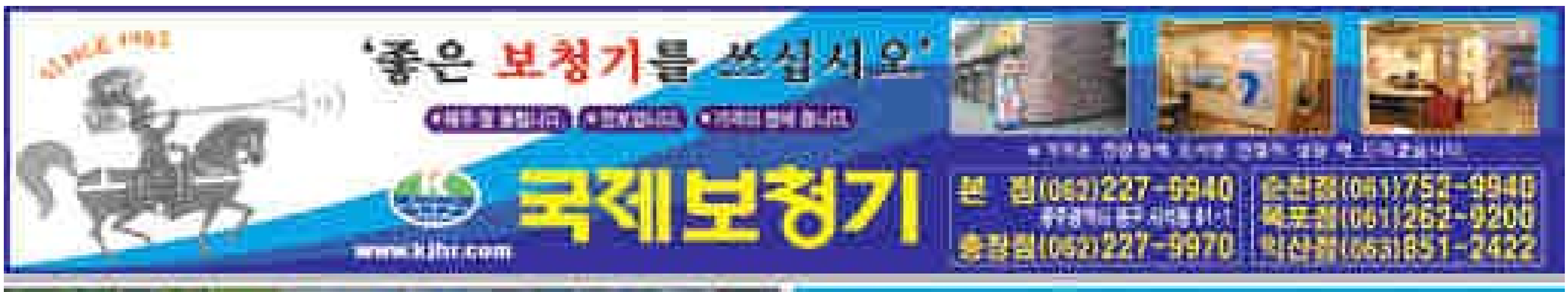
우체국 예금

50조 돌파

우체국 예금이 50조를 돌파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체국 예금은 지난해 말보다 9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1월 증가분(4조3천억원)은 확정치, 2~3월 증가분(5조1천억원)은 잠정치다.

분기별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우체국 예금은 1분기와 3분기, 4분기에 각각 1조5천억원, 9천억원, 1조4천억원씩 줄었고 2분기에 5천억원 늘었다.

그러면서 우체국 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41조9천억원에서 51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예금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7.2%로 2008년 4분기(19.5%) 이후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